

“학생회비 투명성 노력… 아델란테 브랜딩도 성과”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국제캠 공약점검: ‘러닝’

#국제캠 총학 러닝(정: 김미소(한국어학 2021), 부: 김준희(기계공학 2019))은 선거에 출마하며 ▲소통 확대 ▲복지 증진 ▲인권 보장 ▲교육여건 향상 ▲투명한 재정 운용 ▲공간 정비 ▲경회를 위해 달리다를 선정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신문은 국제캠 총학을 만나 공약을 얼마만큼 이행했고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고 싶은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아래는 국제캠 총학 ‘러닝’과의 일문일답.

Q1.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떤가?

학생 권리를 위해 노력했다. 학생 대표로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해도 수정을 요구하며 바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 또한 초기에 설정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밀어붙이기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해 이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판단한 공약도 있었다. 하나의 예로, 시설물 대여 절차를 기존 공약에선 인포21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통합 앱 활용으로 수정했다.

Q2. 이행된 공약 중에서 총학이 스스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학생 자치와 학사 관련 부분이다. 자치회비 법인 계좌 명의 사용, 교육여건 개선 등의 공약도 빨리 이행했다. 공간 관련해서도 전례 없는 예산을 끌어냈고, 많은 환경이 개선됐다.

Q3. 우리 학교 첫 이공계열 총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이공계 출신 총장이신 만큼, 연구와 학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다. 학생 소통 면에서도 열린 소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학위복 변경도 지난해 12월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기억하고 있다가 변경이 이뤄졌다.

Q4. 무전공 제도 도입 관련해서 총학은 어떤 계획인가?

교차 지원 가능 여부를 생각 중이다. 소통 간담회 때 학교 측에 요청했었다. 또한 학과 쏠림 현상과 기존 재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에



국제캠 총학생회 ‘러닝’ 김미소 총학생회장(왼쪽)과 김준희 부총학생회장(오른쪽)

(사진=러닝 제공)

대한 우려가 있다. 수강 신청 방법, 신입생의 소속감 문제는 총학 차원에서 기획단을 구성해 적응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Q5. 국제캠 학식 문제 관련 추후 계획은 무엇인가?

새롭게 학생회관 식당 입찰이 이뤄지면 학생 위원이 그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총학생회 의견보다도 학생 전체 의견이 새 업체 입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학교 측에도 학식은 더 이상 학교의 운영 수익이 아닌 학생 복지 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학교도 공감하고 있다. 입찰 업체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려 한다.

Q6. 공간관리위원회는 학교 측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뤄지는가?

공간관리위원회(공관위)는 학생만의 공간을 위한 회의체가 아니라 교수 연구 공간까지 모두 다루는 회의체다. 그래서 학생이 직접 들어가 참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관위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학생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학교 측도 올해부터 공간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기반 작업이 준비 중이라 답변을 들

었다. 유휴 공간과 잘못 쓰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완료된 상태다.

Q7. 교내 노후 건물 관련 공약 이행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 학생, 교직원의 세 주체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총무관리처 측에서 이미 전문가를 채용해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의 공약은 학생 측이 수리를 요청하고, 학교 측에서 거부할 시, 전문가가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는데 이미 학교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선제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 정밀 안전 진단도 현재까지 2회 진행했다.

Q8. 두 번의 축제를 진행하면서 만족스러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봄에는 연예인 라인업이 아쉬웠다. 하지만 ‘아델란테’로 축제 브랜딩이 잘 이뤄진 점이 만족스럽다. 축제 날이 단순히 술 먹는 날이 아니라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총학이 아닌 학생 중심 브랜딩의 연속성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일관성 있는 축제 브랜딩은 꾸준한 기업 프로모션 유치에도 영향을 준다. 아델란테 브랜딩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

한다.

Q9. 전 학생회의 법인 명의 계좌 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됐는가?

총학생회 계좌를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매뉴얼과 시행착오를 정리해 중앙운영위원회에 공유해 놓은 상태다. 이에 많은 단과대학이 법인 계좌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단과대 학생회까지 법인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법인화의 좋은 점을 전달하면 전환 여부는 각 단과대에서 판단하도록 진행하고 있다.

Q10. 이원화 표기 관련 개선 정도 및 총학생회 입장은 무엇인가?

대학이 이원화 표기 개선만을 위한 부서를 새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취업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원화 표기 문제는 미래 인재센터에서 담당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외에도 모든 거버넌스, 지도 표기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원화 문제는 기획조정처에서 담당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느 정도 업무 정리가 확실하게 된 점에 있어서 만족스럽다.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실제 대응이 이뤄지는지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Q11. 총유학생회 설립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

11월 총선거 때 회칙 개정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학생위원회를 설립하려 한다. 총학은 축제 등의 행사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해 여러 번역 안내 작업을 진행한 바 있지만, 보다 나아가 유학생의 자치 접근 향상과 권리의 인권 보장을 위해 내년에는 유학생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 조직으로 두며 유학생 관련 일을 처리하려 한다.

Q12. 고시반 운영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교무처에서 최대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각 단과대 행정실 및 학장님과 소통해왔다. 통합 운영에서 분리 운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준비 중이다. 미래인재센터와도 소통해 지원금, 공간 등은 마련됐다. 다만 교수님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요가 매우 적은 고시반이라 운영이 어렵게 되는 상황도 있다.

Q13. 연합 선본, 공동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양캠 총학 간의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인가?

학생 자치 부분에서 연합 선본이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학 본부와의 소통 때문에 서울캠, 국제캠 총학이 따로 있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연합 선본으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각자 위치를 지키면서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14. ‘러닝’이 경희대 총학생회로서 학생 자치를 이끌며 학내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소통에 있어 굉장히 노력했다. 재정 운영 수칙을 개정하거나, 자체 회비 결산 내역도 링크트리를 통해 매달 업로드했다. 또한 축제 브랜딩, 학생 복지에 신경을 많이 썼다.

Q15. 남은 임기 동안 주력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이고, 이행하지 못했던 공약 중에 다음 총학에서 이행했으면 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홈페이지 개설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직접 견적도 받았고 저번 달까지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완성하지 못했다. 홈페이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다른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 학생 만족을 높이는 것이 맞다 판단했다. 홈페이지는 학생 회칙이나 회의록 등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 총학이 이를 수 있도록 부탁할 예정이다.